

청소년
도서

대가들이 추천하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박려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바려와 펴낸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廉福姬

责任校对：金红花

技术设计：张学峰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感动童心的感恩故事全集：朝鲜文 / 崔钟雷主编；
朴梨花译.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09.11
ISBN 978-7-5449-0801-6

I. ①感… II. ①崔… ②朴… III. ①儿童文学—故事—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18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211989号

感动童心的感恩故事全集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9.75 字数：227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801-6 （民文）

版次：2009年11月第1版 2009年11月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행운스럽다. 많은 좋은 책들이 친구들을 활기가 넘치는 청춘시절을 누리게 하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한다. 책속의 한결레한결레의 미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마치 밤하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마냥 친구들의 기억 심처에 명기될것이고 흘러간 세월을 섭섭해하지 않고 음미할수 있는 깊은 감동을 얻게 할것이다.

프랑스 작가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마와할줄 모르는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덕을 갖췄다고 할수 없다.” 고마와할줄 알고 남을 돕는것을 락으로 생각해야만 미덕과 쾌락을 수확할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선택한 은혜로운 이야기마다 활짝 피여난 한송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금을 울리는 정절속에 심각한 사상이 숨배여 있다. 마음속에 고마움이 넘치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친구들이 이 예술의 전당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수확하기를 기원한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좋은 책 한권은 일생의 친구이고 좋은 이야기 한결레는 새로 돌아나는 지혜의 싹이며 이런것은 한 사람을 종신토록 혜택을 입게 한다.

이 책이 친구들한테 정신적인 만족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뿐만아니라 지혜와 환락으로 출렁이는 책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기를 기원한다.

차례

아름다운 휴대전화번호	1
비바람속의 국화	3
천당에 거는 전화	7
가장 진귀한 선물	11
가족애를 만끽하다	13
1945년의 편지거래	16
잊을수 없는 새해	19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	21
신발을 빌리다	24
물어뜯었던 햄버거	26
공공서비스안의 사람들	27
감사의 마음	29
아름다운 키스	32
뿌연의 사랑	33
물 한 고추에서 느껴보는 파스칼	35
오늘밤 잘 곳이 있는가	37
장미꽃 한묶음	40
체험	42
동무들, 노래를 멈추세요	44
하느님	47
고마운 이스라엘의 곡식	49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낸적이 있는가	51
소장되었던 선량함	53
마음속의 도적을 단단히 단속하라	55
예약금	57
월터 일가에 선물한 크리스마스꽃바구니	59
생명의 극치	63
바나나향기 넘치다	65
박수갈채	67
종이피아노	69
목숨을 반으로 나누다	71
기도	73
어머니의 자세	76
피혼적	78
어머니 사랑은 말이 없다	80
위대한 어머니, 영원한 조각상	82
잠그지 않은 문	84
우리 엄마	86
어머니는 영원히 정확하다	90
할머니	92
사랑의 표달방식	94
혜살을 수집하다	96
불면의 사랑	98
부처님 같은 어머니의 사랑	100
영원한 아이	103
값싼 사랑	105
아버지 사랑은 끝이 없다	107
아버지의 냄새	109
진정한 사랑	111

손가락을 자르다	112
어머니의 드레스사진	114
어머니한테 드리는 졸업선물	117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118
생명이 주는 감동	120
심종문의 어머니	122
진목의 어머니	124
중명이 필요 없는 아버지	125
우둔한 아이	129
생명의 자양분	133
여름을 새롭게 발견하다	135
아픈만큼 즐겁다	138
마음의 창문	142
마지막장 석간신문	145
어머니꽃	147
군견한테 방탄조끼를 입히다	149
기적	151
마음으로 듣는 노래	154
이웃 밥상우의 진상을 파헤치다	156
나는 천리마이다	159
방어머니	162
어머니와 학부형회의	164
지진속의 아버지와 아들	167
아름다운 거짓말	170
뒤늦게 울린 박수소리	171
행운을 부르는 수선화	172
모성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76
사람을 구원한 해리슨	181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천사의 날개	184
간단한 희망	187
구출	191
선하게 대하라	193
기미	195
꿈을 실현하는데는 신의 도움이 있다	198
생활에는 말이 없다	200
아버지는 웃을수 있다	202
우유 한 고뿌	204
마음속의 저금통장	206
모성애와 간장투석	208
씨앗	211
캐럴의 선천적인 재능	213
아름다운 뒤모습	216
사랑의 해빛아래 류랑은 없다	218
길에 놓여진 돌	223
호킹— 나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225
전망 여섯개	227
병을 치료하는 약	231
말을 훔치다	233
고추장	235
진정으로 후한 마음	238
뉴욕을 감동시키는 마음	240
1달러의 힘	243
박수갈채를 보내다	260
꽃이 피는 리유	244
마음을 쓰다듬다	246
영원히 값이 떨어지지 않는 재부	249

모래와 돌	251
의로운 귀	252
땅 하나	255
소리의 온도	257
령혼을 되찾다	259
배꿀수 있는자는 빈곤하지 않다	261
안위	264
아름다운 약속	266
나를 위해 창문을 달아준 너자에	269
10번째 경찰	271
산타할아버지의 조수	273
조난자가 걸어온 세번째 전화	276
어머니가 보낸 제72번째 편지	278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282
따스함	284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286
내 몸에서는 오늘도 뜨거운 피가 흐른다	288
황금색모래	290
꼬마수지의 구급띠	292
침묵은 금이다	294
맹인과 절름발이	296
진정	299

아름다운 휴대전화번호

어느날 거리를 걷는중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송수화기 저쪽으로부터 애어린 여자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빨리 돌아와요. 보고싶어요.”

잘못 걸린 전화였다. 나에게는 딸은 없고 오직 6살 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그후 며칠동안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나는 성가스럽기 그지없었다. 나는 어떤 때는 거친 태도로 거절해 버리고 어떤 때는 아예 받지 않았다.

그날도 전화가 자꾸 걸려왔다. 예전과 달리 내가 받지 않는데도 끈질기게 걸려왔다. 끝끝내 나는 전화를 받고말았다. 여전히 여자애의 맥빠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빨리 돌아와요. 보고싶어요! 엄마가 아빠의 전화 번호가 틀림없대요. 아빠, 나 많이 아파요. 엄마는 아빠가 사업이 바쁘다고 했어요. 혼자서 나를 돌보는 엄마가 무척 안스러워요. 엄마가 많이 피곤해해요. 아빠, 아빠가 바쁘신 것은 잘 알아요. 돌아올수 없다면 전화에서라도 한번 키스

해줘요.”

아이의 천진한 요구에 거절할 길이 없었던 나는 송수화기에 대고 소리나게 키스를 몇번 해줬다. 잇달아 송수화기 저쪽에서 아이의 말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고마와요… 아빠… 나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잘못 걸려온 전화에 호기심이 생길즈음 여자애가 아닌 다른 한 녀자의 목소리가 송수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한테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일을 마무리 지은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 사과할 생각이었습니다.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태여날 때부터 골암이었거든요. 애 아버지도 얼마전에 차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마 이 사실을 애한테 알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는 화학치료와 시시각각 찾아드는 아픔은 애를 끝없는 고통속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어할 때면 강해야 한다고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애는 입속으로 항상 아버지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 애의 이런 모습을 보다못해 닥치는대로 전화번호 하나를 가르쳐주었던것입니다.”

“지금 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다우쳐물었다.

“금방전에 저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화로 애한테 키스를 해주셨죠. 애의 얼굴에 담담한 미소가 피여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있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리웠다.

비바람속의 국화



오후가 되자 하늘은 어스레하고 전혀 바람기가 일지 않았다. 먹장구름이 폭 드리운것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퍼부을것 같았다. 날씨는 마치 재채기를 하고싶은데 할수 없는 사람이 답답해하는것처럼 숨이 막혔다.

돌선생은 기분이 침울하였다. 그는 이런 날씨에 출장가는것을 가장 귀찮게 느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차를 갈아타고 휴스턴으로 가야 한다. 차가 떠나기까지 두시간 남았는지라 그는 역전앞의 광장을 산보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부인,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멀지 않은 곳에 허술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독수리발 같은 까마반지르르한 손을 내밀고 한 귀부인의 꿈무늬를 졸졸 따르고있었다. 부인은 털색같이 순수하고 반들반들 윤기나는, 몸집이 자그마한 개 한마리를 끌고 총총히 길을 다그쳤다. 행여나 까만 손이 옷에 닿을가 봐 두려웠던것이다.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사흘동안이나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1팔라만 주세요.”

꼬마비렁뱅이를 떼여놓을수 없다고 생각한 부인은 몸을 돌려 노기등등해서 소리 질렀다.

“저리 가지 못해! 꺾꼬만 애가 벌써부터 장사를 하다니!”

남자애는 멍하니 서있었다. 얼굴에는 실망스러운 빛이 어렸다.

한가지 업종이 모자라도 세계를 이룰수 없는 법이구나. 돌선생은 나름대로 생각을 굴렸다. 사회에는 전문 거지노릇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런 방식으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가끔 있단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독하기도 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 장래 사회에 유익한 인재로 키워야 하는게 아닌가?

돌선생이 나름대로 사색의 나래를 펼치는중에 금방전의 꼬마가 그의 앞에 다가서더니 역시 더러운 손을 펼치며 말을 걸었다.

“선생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저는 사흘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1팔라만 주세요.”

남자애의 이런 행동이 정말 가난때문인지 아니면 거짓행각인지는 딱히 알수 없었지만 돌선생은 마음이 찢어졌다. 그는 1팔라짜리 쇠돈을 꺼내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행운이 깃들것입니다.”

남자애의 금빛머리는 덩어리를 켜고 아래우를 훑어보노라니 오직 이발과 눈알만 하얀색을 띠고있었다. 아마 자신도 전번에 목욕을 한 시간이 언제인지 까맣게 잊고있을것이다.

나무우에서 매미울음소리가 성가스럽게 들려오고있었다. 답답하고 무더운 공기가 마치 커다란 시루를 방불케 하였다. 돌선생은 일찌감치 대합실에 들어가기 싫었던지라 그 길로 한 꽃가게에 들어갔다. 그는 여러번 이곳에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사준적이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꽃파는 처녀가 능숙하고도 레절 바르게 물었다.

이때 밖으로부터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돌선생이 힐끗 결눈질로 살펴보니 다름아닌 금방전에 만났던 그 꼬마였다. 꼬마는 진지하게 진렬대우에 놓인 꽃들을 살펴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처녀가 습관적으로 물었지만 종래로 거지가 꽃을 살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만수국 한묶음 주세요.”

뜻밖애 남자애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전해드릴까요?”

“아니예요. 카드에 ‘가장 사랑하는분한테!’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라고 써주세요.”

“모두 20팔라예요.”

처녀는 글을 쓰면서 말하였다.

꼬마는 너털너털 해진 호주머니에서 쇠돈 한웅큼을 꺼내 매대우에 와르르 쏟아놓았다. 동전 한잎한잎마다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마손되였다. 그속에는 아마 방금전에 돌선생이 준 쇠돈도 있을것이다. 20팔라를 세서 주고난 그는 공손하게 아래쪽에 종이패쪽이 있는 꽃을 건어안고 몸을 돌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려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름대로 감정이 풍부한 꼬마네. 이것은 돌선생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서서히 들어섰다.

돌선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있었다. 길에는 행인들은 보이지 않고 애오라지 갓가지 차량들만이 남아있을뿐이었다. 갑자기 돌선생은 비속에서 방금전의 남자애를 발견하였다. 남자애는 만발한 꽃 한 묶음을 품에 안은채 한발작한발작 천천히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있었는데 다른 일은 까맣게 잊고있는듯싶었다. 비바람속에서 그의 여윈 몸은 더한층 섬약해보였다. 돌선생이 남자애가 걸어가는 방향을 보니 공동묘지였다. 남자애 손에 들린 국화꽃은 비바람속에서 한층 더 활짝 펴있었다.

기차는 절거덩절거덩 소리를 내면서 점점 빨리 달렸다. 돌선생의 마음도 한번 또 한번 강렬한 충격을 받고있었다. 순간 그는 눈앞이 흐려짐을 느꼈다.

천당에 가는 전화



어느 토요일날 오후 주민구역옆에 세워진 뉴스스탠드에 서 주인 문아저씨가 한창 한가하게 잡지를 뒤지고있었다. 이때 빨간 치마를 차려입은 열대여섯살 남짓해보이는 한 녀 자애가 뉴스스탠드앞에 다가왔다. 그 애는 사방을 빙 둘러 보는품이 조금은 망설이는 기미가 보였다. 그는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런데 잠간후 또 다시 뉴스스탠드앞에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뉴스스탠드앞을 왔다갔다해서인지 아니면 불안해보이는 그의 얼굴표정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입은 빨간 치마가 특별히 눈에 띄이어서인지는 잘 몰라도 마침내 문아저씨의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머리를 들어 녀자 애를 보던 문아저씨가 그를 불렀다.

“애, 꼬마야, 잡지를 사려구 그래?”

“아니예요, 아저씨. 저는… 저는 전화 한통 걸려고…”

“응, 그러거라.”

“감사해요, 아저씨. 장거리전화도 될가요?”

“당연하지. 국제전화도 걸수 있어.”

동심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이야기

녀자애는 조심스럽게 송수화기를 들고 진지하게 전화번호를 눌렀다. 마음씨 착한 문아저씨는 행여나 녀자애한테 방해라도 될가봐 아예 몸을 한쪽으로 돌리고 잡지를 보는척하였다. 금방전까지만 해도 황황해하던 녀자애가 차츰 긴장감을 풀었다. 마침내 전화가 걸렸다.

“엄… 엄마! 국화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엄마, 저는 삼촌을 따라 동향에 왔어요. 전번달 삼촌은 월급을 받자마자 저한테 50원을 주었어요. 저는 그 돈을 베개밑에 고스란히 놓았어요. 일단 500원을 모으면 동생의 학비를 부쳐주고 아버지한테 화학비료를 사드리겠어요.”

잠간 생각을 굴리던 녀자애는 말을 이었다.

“엄마, 삼촌 공장에서는 매일마다 고기불이를 먹을수 있어요. 저는 엄청 살이 쪘어요. 근심하지 말아요. 저는 잘 지내요. 그리고 엄마, 전날 이곳의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빨간색치마 하나를 선물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치마를 입고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거예요. 엄마, 삼촌의 공장에서는 텔레비죤도 볼수 있어요. 제가 제일 보기 좋아하는 장면은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녀자애의 목소리가 돌변하더니 설새없이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엄마, 아직도 위가 늘 아파요? 엄마가 살고있는 곳도 꽃이 피었나요? 저는 집이 무척 그리워요. 동생도 아빠도 엄마도 보고싶어요. 엄마가 무척 보고싶어요. 저는 늘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곤 해요! 엄마…”

녀자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문아저씨는 집을 그리워하는 녀자애의 애틋한 심정을 리해할수 있었다. 녀자